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역할



이지은
코이카(KOICA)
경제사회개발부 기후환경팀 과장
jelee@koica.go.kr

1. 서론

물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요소이자, 경제활동의 근간이다. 그러나 지난 세기 동안 급속한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의 물 압박은 더 나아가 이로 인한 국제적인 분쟁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의 빈발, 환경파괴, 생물다양성 감소 등 다양한 환경문제는 2004년 인도 수마트라 지진해일, 2005년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및 지진해일, 2013년 서유럽 대홍수 등 극한 규모의 재해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더욱 심각한 물 문제를 겪고 있다. 아직도 많은 인구가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위생처리 시설조차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아 물과 관련된 자연재해로 더 큰 인명피해를 입고 있으며, 자연재해 복구 지연과 연간 경제성장률의 급락으로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2000년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공표하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전 지구적인 물과 위생분야 개선 노력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물의 접근성 향상에 많은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 6.6억 명의 인구가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아프리카 사하라 인근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위생시설 접근인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데, 약 24억 명의 인구가 제대로 된 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역시도 사하라 인근지역에서 약 70%가 접근불가능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¹⁾.

지난 2015년 9월 UN에서 많은 나라가 모여 MDGs의 종료를 선언하고 그간의 노력을 분석 및 평가하고, 향후 15년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공표하였다. 특히 SDGs 체제에서는 그간 개발도상국 위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선진국,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개발 주체가 대상이 되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물 분야 국제 개발원조 동향 및 한국의 기여

OECD/DAC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40년간 물

1) UN Water, Millennium Development Report, 2015.

과 위생(WSS, Water Supply and Sanitation) 분야에 대한 지원액은 2012년 기준으로 약 81억 달러가 지출되었으며 이는 2002년 약 18억 달러 수준에 비해 4.7배 증가한 규모이다. 승인액 기준으로 총 공적

개발 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 추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²⁾.

Chart 1. Trends on aid to Water Supply and Sanitation
1973-2012, 5-year moving average commitments, constant 2012 pr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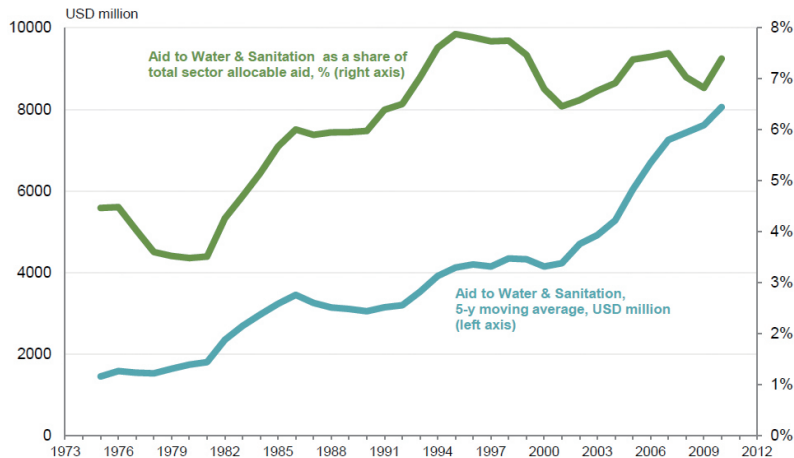


그림 1. 전세계 물공급과 위생 지원(1973-2012) *출처: 2014, OECD-DAC.

우리나라는 OECD/DAC 회원국 중,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유일한 나라로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지구적 물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물 공급과 위생분야에서 2013년 기준 한국은 일본, 독일, 미국을 이어 4번째 순위로 약 3.5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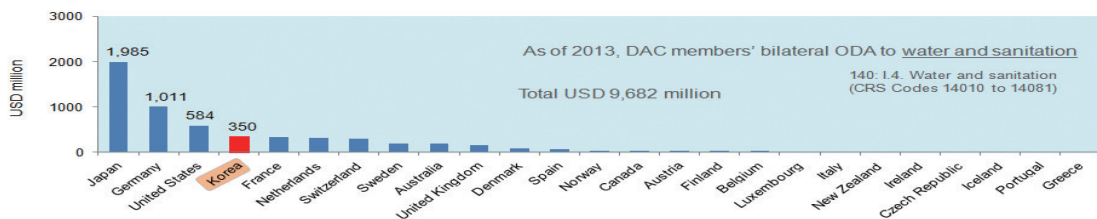


그림 2. 국가별 물공급과 위생 지원순위(2013기준) *출처: 2013, OECD-DAC.

KOICA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대표기관으로써 1991년 창립 이래로 국제사회 물 분야 지원 동향과

비슷한 추이로 해당분야에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아래 그림 3 과 같이 전체 KOICA 원조 지원총액 중

2) 국무조정실, 수자원분야 ODA 종합평가연구, 2014.

약 8%정도가 물 분야에 투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KOICA의 물과 관련된 분야는 보건, 농업, 산업에너지 및 기후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 2015년 지출기준으로 약 13% 가량이 지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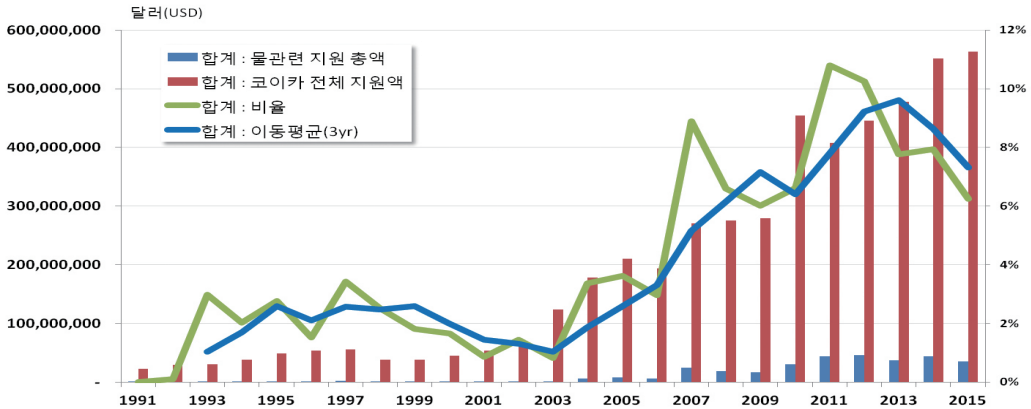


그림 3. KOICA 물 분야 지원 성과(1991-2015) *출처: KOICA 통계자료.

지역적으로는 90년대 남미, 아프리카, 중동지역 위주의 지원에서 2000년 후반부터는 아시아지역에 중점 지원하는 추세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간의 식수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공급을 비롯하여 최근 소수력발전, 통합수자원관리, 수질오염처리, 재해방지를 위한 시스템구축 등 사업영역이 점차 다각화되고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의 지리적 특수성, 국가발전도 및 우리나라의 기술 비교우위 선점분야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물 산업과 공적개발원조

물 분야는 미래 신성장 블루골드(Blue Gold) 산업분야로 세계 물 시장은 2010년 4,830억 불에서 2025년 8,650억 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³⁾. 또한 물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상수도 중심에서 해수담수화, 물 재이용, 폐수처리 시설 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증가 및 산업의 고도화 등으로 이와 같은 변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물 산업시장은 점차 포화상태로 가고 있으며 물 산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상수도 시설 보급률은 90%를 초과하여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부터 ‘물 산업 육성방안 및 세부 추진 계획’ 수립, 2009년 ‘물 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활성화 계획’ 발표,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물 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으나, 주변국인 일본 및 싱가포르에 비해 국가적 주요 정책과제로의 추진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⁴⁾.

지난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의 한국개최를 모

3) GWI, Global Water Market Report ,2011.

4) KISTEP, 창조경제와 물 산업, 2013.

멘텀으로하여 한국정부는 다시 한번 물 산업과 해외진출에 대한 방안 마련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물과 재해 고위급패널회의(HELP, High-level Experts and Leaders Panel on Water and Disasters), 스톡홀름 세계물주간회의(WWW, World Water Week in Stockholm) 등 여러 국제사회 활동 참여 및 아시아물위원회(AWC, Asia Water Council), 한국국제물주간회의(KIWW, Korea International Water Week)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물 문제 해결노력 및 국내 물 산업 진출에 대해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개발도상국에서도 한국의 물 관리 기술과 수자원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크다. 이는 매년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수원국으로부터 접수되는 사업제안서(PCP, Paper Concept Paper)가 10년 전에 비해서 통합수자원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수자원정보화시스템 구축, 물 관련 재해대응 및 관리사업 등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국내의 비교우위 사업들의 플랫폼 역할을 어떻게 모색 할 수 있는지 기능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적개발원조의 역할과 전략

국제사회는 전지구적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의 17개 목표설정, 재해경감센다이 프레임워크의 4가지 기본원칙과 7개 목표제시, 제21차 유엔기후변 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적용(Adaptation)의 물에 대한 논의 등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인류의 빈곤종식 및 재해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OICA도 그간 부재했던 ‘물 분야 중기 전략 2016-2020’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개발도상국의 물 관련 재해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수원국, 타 원조 공여기관을 비롯하여 국내 물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물 관련 분야는 기후변화, 도시화 등의 영향으로 사업타당성 예측이 특히 어려운 분야로 마스터플랜수립과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대국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 및 법 제도 등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토하여 지속적인 수원국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수자원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국적 물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진출하는 전략 발판으로 원조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국내기관의 해외진출을 위한 방안으로 차관을 비롯한 무상자금 지원을 통한 공적자금의 재정지원 노력에 관련 기관들은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물 관련 인프라 투자확대를 위한 혁신적(innovative)이고 금융지원이 가능한(bankable) 사업 형성은 사업기획단계에서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재원 및 글로벌 펀드 등의 개발재원 연계를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내의 물 관련 산업 진출의 가교역할을 하는 진정한 국제개발협력을 실현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